

■ '디지털교과서 시범' 여수 백초초등학교 가보니

PC로 척척... "수학이 재미있어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백초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 수업은 다른 학교와 사뭇 다르다.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의당 있어야 할 종이 교과서와 노트 대신 디지털교과서인 태블릿PC가 놓여 있다. 태블릿 PC는 기존의 PC와는 달리 자판을 두드리지 않고 전자펜을 써 입력·저장·검색 등을 하는 컴퓨터다.

를 풀고, 그 과정을 고스란히 저장할 수 있으며 필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업 때 찍은 사진을 클릭 한 번만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반응은 '최고'였다. 6학년 박한별(12)군은 "원래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디지털교과서를 작동하는 것이 재미있어 흥미를 갖게 됐다"며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여수 백초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학 수업 중 디지털교과서인 태블릿 PC를 종이교과서 다루듯 활용하며 공부를 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자펜으로 문제 풀고 과정 저장 1대1 수업가능·가정 학습도 편리

나무모작으로 만들어볼까요. 그런 다음 어떤 규칙에 의해 피라미드가 올라갔는지를 교과서에 써보세요"라고 말하자 학생들이 조별로 나무 쌓기를 한 뒤 캠프더로 촬영해 PC에 저장했다. 학생들은 전자펜을 이용해 PC의 각종 기능들을 실행하며 종이교과서 다루듯 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전국 네 곳의 '디지털교과서 실험학교' 중 하나로 선정돼 6학년 2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이용, 수학 수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5학년 10명, 6학년 17명 등 모두 27명에게 확대 실시 중이다.

학생들은 PC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수업 중 함부로 딴 짓을 했다가는 바로 교사에게 적발되는 것이다. 자신이 수업 중 가르쳤던 내용 역시 클릭 하나로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다. 김 교사는 "이달 말부터는 자신의 디지털교과서를 인터넷을 통해 보는 일이 가능해져 가정 학습도 편리해졌다"며 "흥미를 유발해 자연스럽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교과서로 공부할 때보다 더 이해가 쉽다'는 질문에는 '대체로 그렇다'가 61%(13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48.8%·1명 등이었다.

백초초등학교 최진원 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태블릿 PC를 여수시청에서 지원(4천만원)해줘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실험학교들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실험학교들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

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 백초초등학생 디지털 교과서 설문

"종이 교과서보다 이해 쉽다"

가 19%(4명)씩 차지했다.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의 기능 중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체의 47.6%(10명)가 '멀티미디어 기능을 꼽았고, 그 뒤를 '메모장 기능'(19%·4명), '펜기능'과 '저장 기능'(12.3%·각 4명), '검색 기능'(4.8%·1명) 등이었다.

백초초등학교 66.6%(14명), D조등학교 19%(4명)로 나와 디지털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08년 전국 20개 초등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고, 총 660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초·중·고교 100곳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목 수도 현재의 수학 한 과목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전 과목과 중학교 3개(수학·과학·영어), 고등학교 2개(수학·영어)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성 납치 금품 강탈 사건 잇따라

여성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새벽 5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C호텔 앞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한 2명이 퇴근하던 유흥업씨(여·24)씨를 흉기로 위협, 김씨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워 도주했다.

김씨와 차량을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해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 납치강도들이 지난달 26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C점집방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납치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범죄 수법 등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 소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택시 운전사 폭행 30대 가중처벌

개정 특가법 첫 적용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30대 2명이 개정된 특가법(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동부경찰은 15일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사를 때린 김모(33)·서모(31)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상해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고 G호텔 앞으로 가던 중 급정거로 서서히 차체를 머리를 부딪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건의 경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처벌했다"며 "이들이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운전사를 때린 점 등을 감안, 특가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묻지마 도둑' 소방호스 노즐 싸늘이

강철 제품보다 비싸 광주 아파트들 비상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호스 노즐 수백여 개가 도난당했다. 15일 광주시 서구 유덕동 상무버들주공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단지 내 소방호스 노즐 323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도난당한 소방호스 노즐은 1단 지 97개, 2단 지 226개. 이 항목 노즐은 개당 20cm로 소화전에 비치돼 있었다. 또 일반 강철 제품보다 비싼 1kg당 2천400원에 고품질이 사들이고 있어 고철 절도 범들의 표적이 됐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反 한미 FTA' 분신

허세욱씨 끝내 숨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1일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서 근처

에서 분신을 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허세욱(54)씨가 15일 오전 11시23분 숨졌다. 서울 H운수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해 온 허씨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총당 당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경기 안성이 고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남뉴스

나원침 (7104) 김장두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명품] · [후수] · [포장] · [최고] · [안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간 큰 조폭, 경찰 강제추행 '쇼동'

○조폭폭력배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폭의 위력에 눌려 자신의 은밀한(?) 부위까지 붙잡히는 등 망신살.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U의류 상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던 광주지역 폭력 조직 총장오비과 행동대원 안모(29)씨 등 2명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남당지구대 소속 N경사가 이들의 완력에 밀려 자신의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를 붙잡히는 등 수모를 당했다는 것. ○180cm의 키에 몸무게가 100kg의 거구인 안씨는 20여분간 가게에서 소동을 피우다 뒤늦게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5명에게 검거됐고, 안씨의 친구 오모(29)씨는 현장에서 도주. ○경찰은 15일 안씨를 강제추행·폭력·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오씨를 쫓고 있다고.

/오광목기자 kroh@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Europe, and various international destinations.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detailed pricing for different tour options.